

2024년 1월 31일

KT&G 지배구조위원회, 차기 사장 후보 1차 쏫리스트 확정

KT&G 지배구조위원회(이하 지구위)는 31일 지구위를 열고 사외 후보자 4명과 사내 후보자 4명, 총 8명을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1차 쏫리스트)로 확정하고, 이날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 추천했습니다.

지구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해 1차 쏫리스트를 선정했습니다.

향후 사추위는 충분한 검증을 통한 최적의 후보자 선정을 위해 1차 쏫리스트 8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해, 2월 중순에는 후보자를 3~4명 내외로 압축한 2차 쏫리스트를 확정하고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2차 쏫리스트를 대상으로 사추위는 집중적인 대면 심층 인터뷰를 통해 2월 중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이사회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월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체의 총의를 반영해 차기 사장 선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사추위는 현직 사장을 제외한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됐습니다. 백복인 사장은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추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김명철 사장후보추천위원장은 “지구위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해 사추위에 추천한 만큼, 앞으로 사추위는 전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원칙하에 KT&G의 사장 후보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IR실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